유보통합, 첫 걸음 떼다

전북 유보통합추진협의회 첫 회의 개최… 방향 등 공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보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 유보통합추진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김숙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유아교육 관계자(교수, 원장, 진흥원장, 유치원교사, 학부모)와 보육관계자(교수, 원장, 센터장, 보육교사, 부모)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의 방향을 공유하고, 유보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 의견을 나눴다.

이에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 관계자, 전북도, 보육관계자와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 및 토론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전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별없는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온·오프라인 교사 연수를 추진해오고 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유보통합추진협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주체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나아가 공감대를 형성해 영·유아·학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전북형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지난 25~28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몽골국립대와 몽골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한 현지 기업, 몽골 지역 관공서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협력의 폭을 넓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글로컬30 사업 본 지정 위한 기반 '탄탄'

전북대, 몽골생명과학대·기업체 등과 협약 잇따라… '글로벌 허브' 실현 구체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몽골 대학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지정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다.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지난 25~28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몽골국립대와 몽골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한 현지 기업, 몽골 지역 관공서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협력의 폭을 넓혔다.

첫날 몽골국립대를 방문한 양 총장은 바달츠 덴데브(Badarch DENDEV) 총장을 만나 교육 및 학술교류 협력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몽골생명과학대학을 찾은 양 총장은 한국-몽골 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몽골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해 ㈜ADAMAS MINING, GOLDENHAILS LLC, ㈜감진, ㈜코스텍 등 6자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 간의 협력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과 희토류 금속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전북대가 집중 육성할 2차전지 인력양성과, 전라북도의 2차전지 특화산업 전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몽골생명과학대학과 몽골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고비순베르주 등 3자 간 관-학 협력도 체결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몽골 주요 대학과 기업, 그리고 기관과의 폭넓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우리대학의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지정을 위한 글로벌 허브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들을 통해 전북대가 구축하고자 하는 '글로벌 허브' 대학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 융·복합 설계 프로젝트, '대장정' 마쳤다

국내-해외 대학생 팀 구성
창의적 공학설계 작품 제작
원광대-말레이 연합팀 '대상'

'2023 글로벌 융·복합 설계 프로젝트(i-CAPS)'가 7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와 전남대, 충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프로젝트는 2013년 시작해 올해까지 10기 수료생을 배출한 선도적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지난 20일부터 5일간의 캠프를 개최해 작품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팀을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캠프에는 국내 11개 대학(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군산대, 원광대, 제주대, 강릉원주대, 동신대, 순천대, 순천향대, 호서대)과 해외 5개 대학(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 말레이시아 케방산국립대학, 대만 첸쿵국립대학,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의 19개 연합팀, 9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지난 2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차 캠프에서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작품의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후 지난 7개월 동안 지도교수와 함께 작품 제작 활동을 진행, 5월과 8월 2회에 걸쳐 국제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2023 글로벌 융·복합 설계 프로젝트(i-CAPS)'가 7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와 전남대, 충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프로젝트는 2013년 시작해 올해까지 10기 수료생을 배출한 선도적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이번에 열린 2차 캠프에서는 최종발표 및 평가가 이뤄졌다. 팀별로 각 나라에서 제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작품을 완성했고,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해 전북대학교 총장상(대상), 공학교육혁신협의회장상(금상), 전북대·전남대·충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장상(은상) 등 우수팀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대상은 원광대학교-말레이시아 연합팀(R.G)이 수상했으며, 금상은 순천향대학교-인도네시아 연합팀(Dream Team), 은상은 순천대학교-말레이시아 연합팀(Dunnae Station Team)과 동신대학교-인도네시아 연합팀(Jigy), 제주대학교-인도네시아 연합팀(Scoot Buddy Team)이 각각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ICT 교육 노하우 전수합니다'

도교육청, 교류협력국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9월 8일까지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 20명을 초청, 교육정보화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필리핀 교원에 ICT교육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디지털교육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간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도 원격연수를 통해 교류협력국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AI 프로그래밍'을 주제로 도내 정보화 선도교원(LEAD교사단)이 강사로 참여해 양국 교사 간 정보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연수는 △온라인 수업 도구 활용 수업 △AI 도구를 활용한 교과학습 수업 △챗 GPT 활용 수업 △SW·AI 교육 △머신러닝 포 키즈를 활용한 AI 활용 수업 등으로 이뤄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 8일까지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 20명을 초청, 교육정보화연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연수기간 카비테주 교원들은 도내 정보교육 선도학교, 교육기관, ICT체험기관 등을 방문해 전북교육청의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연수기간 동안 필리핀 교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더불어 양질의 교육정보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면서 "전북에서 배운 ICT 활용 수업을 필리핀에 돌아가서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인덕대, 지역거점 대학 공유·협업 '맞손'

전주기전대학 LINC3.0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29일 인덕대학교 LINC3.0사업단과 지역거점대학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LINC3.0사업단장, 이정미 Health&life care ICC센터장, 인덕대학교 도경민 LINC3.0사업단장, 이한나 산학협력정보담당관 등 대학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사업별 지역 거점대학으로 공유·협력 강화, △LINC3.0사업 성과 공유, △지·산·학·연 협력 및 확산,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공유·협력, △지역거점대학으로 공유·협업·확산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연구윤리 교육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교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의 질관리팀에서 생명윤리법 기본과 기관위원회 심의의 이해를, 심의지원팀에서 기관생명윤리 심의 신청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의 공용위원회 이용 방법을,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 이근상 산학협력단장이 연구윤리 관련근거, 연구윤리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처리절차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 이진영 강사는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 연구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근상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각 분야별 연구의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연구에 있어서도 윤리적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AI 탑재 메타버스 서비스 오픈

전주대 경영대학, ChatGPT 기반 챗봇 건물 안 배치
대학 정보 상시 제공… 기존 서비스 한계 극복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은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오픈한 메타버스 서비스는 화상회의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인 게더타운(Gather Town)으로 구축, 메타버스 안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일반인 간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할 수 있다.

특히 경영대학 건물인 자유관을 메타버스에 구현해 현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건물 내·외부를 둘러볼 수 있으며, 벚꽃과 메타세콰이어길 등 자유관의 주요 명소에 사진과 동영상을 탑재해 실재감을 높였다.

또한 ChatGPT 기반의 챗봇을 건물 안에 배치해 경영대학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등 기존 메타버스 서비스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경영대학 이경재 학장은 "AI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공간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의 장점을 살려 전화와 방문 중심의 기존 민원·상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경영대학 산하 학과들과의 협업을 통해 AI 튜터 개발 등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대학 메타버스 서비스는 경영대학 홈페이지(http://biz.jjac.kr) 접속 후 '경영대학 메타버스'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정희석 산학협력단장과 김호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보건과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전북지역 보건·환경 분야 발전 '맞손'

우석대 산학협력단-전북보건환경연구원,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이 전북지역 보건과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우석대학교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정희석 산학협력단장과 김호주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전북지역 보건·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시너지를 높이고, 전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지역 보건·환경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관학 협력에 관한 기술 및 경영자문 △상호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협력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상호 교류 △학생 인턴십 및 현장실습 운영 등이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전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지역 환경보전에 매진하고 있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관학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지원해 협력 분야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주 원장은 "우석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도민들이 더욱 행복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성과를 이뤄내자"고 답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